회사소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3-1
전 화 : (02)711-3422~5

수지응용연구소가 들어서 있는 TNC중앙연구소 연구동 전경

1. 회사연혁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는 동양나이론(주)와 일본의 미쯔비시가스화학(주)가 합작하여 1987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같은해 국내에서 최초로 연산 1만톤 규모의 Polyacetal 생산에 성공하였는데 그전에는 polyacetal을 전량 수입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국산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도에 1만톤 증설이 완료됨으로써 연산 2만톤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올 10월 완공목표로 2차증설이 추진되어 금년 말에는 총연산 3.5만톤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1994년도에는 ISO 9002를 취득함으로써 세계적인 품질로 인정받았으며 국내 수요증가에 따른 안정적 공급은 물론이고 선진 외국으로의 수출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의 수지응용연구소는 1989년 11월 1일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꾸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제품 소개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Polyacetal(상품명 : KEPITAL)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서 뛰어난 기계적·열적 성질, 내약품성, 내마찰·내마모 특성 및 치수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이외에도 우수한 재생특성과 성형성 등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각 분야에서 제품에 대한 고품질, 고기능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서 아세탈 역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고기능성 재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즉 각종 기어나 캠, 부싱류와 같이 우수한 구동 특성을 요구하는 부품에서는 기존의 제품보다 더욱 향상된 내마찰·내마모성이나 저소음 특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로 구동시에 탁월한 윤활성과 소음감소 효과를 가지는 신규 내마모 Grade를 개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KEPITAL TP-20(Natural)과 FM2520S(Black)은 종래의 구동재료로서 많이 사용되어 오던 금속재료나 일부 외산품의 내마모 Grade들이 갖고 있던 각종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아세탈 본래의 표준 물성을 유지함은 물론이고 사출성형, 금형오염 등의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으면서 내마찰·내마모성 및 구동시 저소음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3. 앞으로의 계획

저희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고객의 만족이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제품 개발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 시기에 품질도 세계화, 일류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Polyacetal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타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포함하여 고기능성 수지개발, 폴리머 알로이 등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